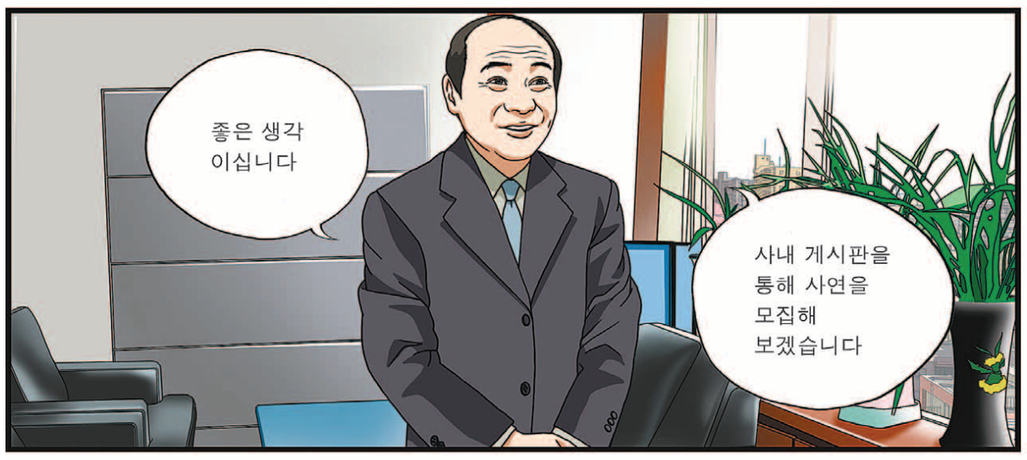

힘내요!
달마부장
글·그림 : 박성훈

104화 감동수기


회사 다니면서
감동했던 수기를
모집해보는 게
어떨까 싶은데
수기요?
박 시 계


한 해를 보내면서
애사심도 높이고
감사하는 마음도
갖고 말이야


좋은 생각
이십니다
사내 게시판을
통해 사연을
모집해
보겠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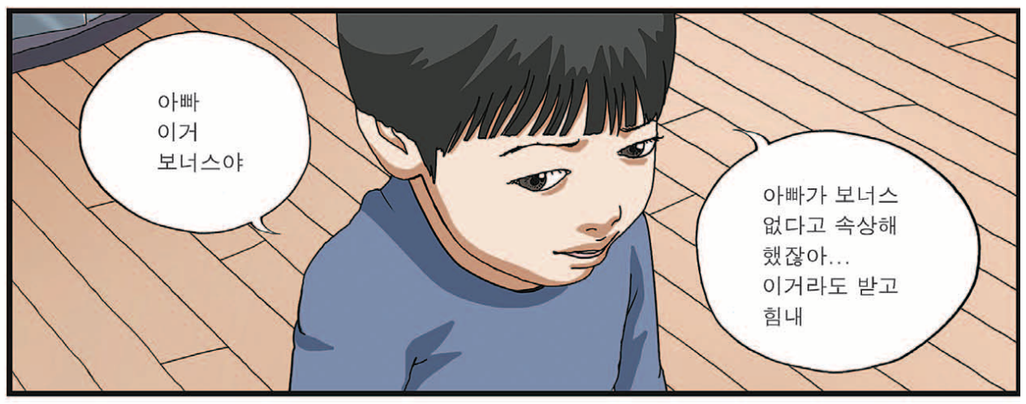

어느 날 출근길
이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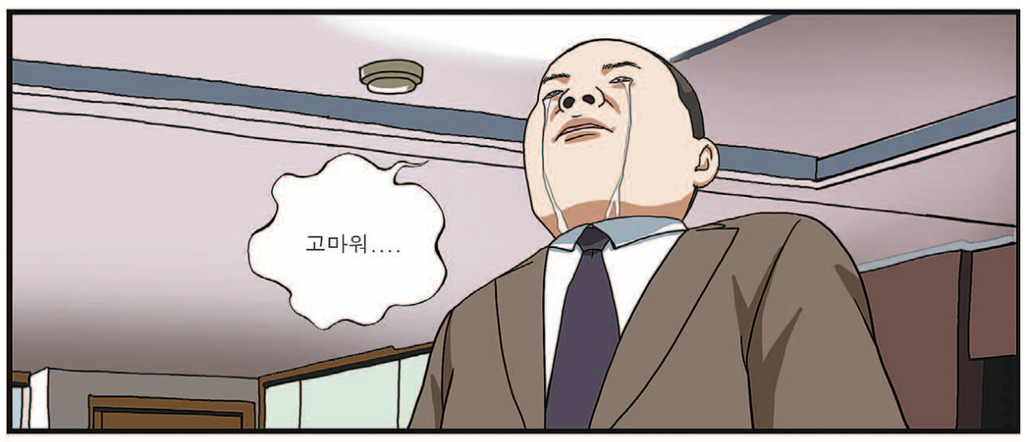

아이가
출근하는데
인사도 안 하고
방에 틀어박혀
있길래


이상하다고
생각해서
가봤더니...


숙제인지 뭔지
열심히 하고
있더라고요
5만
5만
백 만 원


아빠
이거
그게
뭔데?


아빠
이거
보너스야
아빠가 보너스
없다고 속상해
했잖아...
이거라도 받고
힘내


고마워....


가장 많은
득표를 얻은
사연입니다
탈락!